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최 효 임* · 김 성 일**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5학년생 4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 모두가 자율을 더 허용한다고 지각하였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취 압력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부모가 과잉 기대를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40대인 아버지가 30대보다 자녀에 대한 성취 압력이 높게 지각되었다.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대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이 중 교사와의 관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학교 수업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에서는 부모 모두 또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녀를 수용하고 자율적인 태도로 양육하였을 때 아동이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성취 압력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로 나타났다.

주제어: 부모의 양육태도,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학교생활적응

* 강릉 중앙초등학교 교사

** 강릉대학교 교수

I. 서론

아동 및 청소년기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그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한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학교생활 적응 문제는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하영, 2002).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매년 학교 부적응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3년간 고교 중퇴자 10만여 명의 중퇴 이유는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형편, 품행문제, 질병, 유학과 이민 등으로 그 중에서 학교생활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만 둔 경우가 가장 많은 40%로 밝혀졌다(동아일보, 2004, 9, 14).

한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체로 성별, 연령, 학업 성적, 종교 유무 등의 개인 특성 변인과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월수입, 동거 가족의 수, 부모의 결혼 상태 등의 가정 특성 변인으로 구분되고 있다(정유진, 1999). 그러나 Brofenbrenner(1986), McLoyd(1990) 등은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대인 관계, 즉 부모-자녀 관계 등의 변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 적응에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는 대부분이 가족 기능이나 아동의 성적 또는 성격특성과의 관계(구자은, 2000; 임유진, 2001; 지수경, 2001)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고혜진, 2003; 남궁정, 2001; 이승화, 2001)라 할지라도 부모간에 양육의 방법, 태도, 철학 등의 일치여부나 방향을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녀에 대한 양육 담당이 부모 어느 한 쪽에만 귀속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 부모간 양육태도의 일치여부가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최영(1990)에 의하면 부모 양육태도의 불일치는 자녀의 갈등과 좌절, 욕구불만, 사회적 부적응 등 성격 발달에 유해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고, 그 태도의 일치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하여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연령과 학력 및 자녀의 성별 차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성별과 부모의 연령 및 학력별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 일치유형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의 개념 및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내적·외적인 태도나 행동을 말한다(권순명, 1993; 송설희, 1994; 오성심·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수용(Rejection-Acceptance),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의 2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정신분석이론에 입각한 그의 분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건전한 양육태도에 대한 규준이 없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이원영, 1983).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한 Schaefer(1959)는 30여년 동안의 관찰기록에 의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Love-Hostility)와 자율-통제(Autonomy-Control) 차원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행동양식을 애정적-자율적인 태도, 애정적-통제적인 태도, 자율적-적대적인 태도, 통제적-적대적 태도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다. Schaefer의 부모 양육태도 모형은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Schaefer의 모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밖에도 Becker(1964)는 부모의 양육 유형을 온정적-적대적 차원과 허용적-제한적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Baumrind(1991)는 허용적-억압적 유형, 권위주의적 유형, 권위있는 유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에서도 1960년경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종혜(1980)는 자녀의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리라고 예측되는 차원을 애정-수용 대 적대-거부, 민주-자율 대 권위-통제의 2가지로 분류하였고,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의 양육태도 이론을 근거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기정(1984)은 자아개념의 고양과 관련된 심리적 관계의 조건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 압력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구병두(1996)는 가정의 과징환경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 등으로 세분하였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부모 스스로가 인식하는 양육태도이며, 다른 한 가지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인지 정도이다. Midnnus(1965)는 부모가 실제로 어떠한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했는가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였는가에 따라 아동의 자아수용이 달라지며 훨씬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녀의 성격형성에는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유양숙, 1995).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김기정(1984)의 분류를

채택하여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 압력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2.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 및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력이나 연령,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고혜진(2003)과 김영아(1997)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 모두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남궁정(2001)은 아버지가 여학생에게 수용적이고 남학생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어머니는 여학생에게 자율적이고 남학생에게 통제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최경자(2002)의 조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자율적·과잉 기대적이라 지각하였다. 한편, 김정애(1999)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양육태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의 태도를 수용적·자율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많다.

부모의 연령과 학력에 의한 차이를 보면, 부모의 학력이 대졸인 아동이 중졸인 아동보다 부모의 태도가 더 화목한 것으로 지각하며(김정애, 1999),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해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희, 1996). 그러나,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양육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혜진, 2003).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부모가 허용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로 양육할 때 자녀는 책임감을 갖게 되고(Schaefer, 1965), 자신감, 협동성, 독립성, 적극성, 자발성, 활동성, 창의성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과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

났다(김지자 외, 2000; 신은정, 1999; Mussen, 1968). 반면에, 부모가 처벌이나 위협을 가하는 등의 권위주의적이고 엄격한 양육태도를 자주 사용하면 아동은 타인 또는 자기에 대한 공격성을 나타내고 사회성의 결여를 초래하며(남궁정, 2001), 어른에게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안미경, 1996; Schaefer, 1965)과 같은 심각한 부적응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가족체계이론에서는 부모 각자의 역할분만 아니라 아동과 함께 상호 작용할 때 일관된 가치관을 갖고 서로를 지지하며 자녀를 함께 양육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Emery, 1988; Grych & Fincham, 1990). 부모간 양육태도의 영향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자녀가 한쪽 부모와 있는 상황에서도 발견된다(McHale, 1997). 즉, 아버지와 자녀 또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있을 때도 부재 부모에 대한 반응이나 어투 등에서 부모간 양육태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간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서로를 지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명백히 드러나는 행동적인 측면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서적인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김수진, 도현심, 2001).

Hurlock(1972)는 부모간 양육태도의 불일치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 개념의 차이 때문이며 대부분의 부모가 아동 양육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육방법의 적용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간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면 아동은 정서적 균형을 잃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며 권위에 대한 양면적 태도를 보이거나(정인석, 1977), 갈등과 좌절, 사회적 부적응으로 고통받기 쉽다(최영, 1990). 실제 조사 결과(손직수, 1970)를 보면, 양육태도가 불일치한 부모의 자녀는 자기통제가 어려워 사회적응에 결함을 보이며 열등감이 많고 반항적인 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간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 앞에서 부모 중 한 쪽의 양육방법을 지지하지 않

는다든지 혹은 비평한다면 이 부모들은 양육에 실패하고 만다(Ilga & Ames, 1955). 심희정(1987)과 전진선(1995)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자율적으로 일치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의 자기통제력과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성취 압력 태도의 일치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특히, 임은실(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단순히 일치와 불일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아동의 자기통제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긍정적 일치, 부정적 일치, 불일치로 세분할 경우에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부모간 양육태도의 일치도는 아동의 자기통제력과 적응력, 학습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양육태도의 일치유형을 세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학교생활 적응의 개념과 관련 요인

학교생활 적응의 개념에 대해 민영순(1995)은 학습자가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준, 질서 등에 대해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현정(1998)은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생활 적응을 김정환(1981)은 학교생활 태도, 학급생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 친구에 대한 태도 등 4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김용래와 구성숙(1991)은 학교환경 적응, 학교교사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친구 적응, 학교생활 적응 등으로 나누었다. 이와는 달리 김홍재(1994)는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 관계, 학습 활동, 규칙 준수 관계, 학교

행사 관계 등 5개 하위 영역을 설정하였고, 유윤희(1994)는 이 구분에서 학교 행사 관계를 제외하여 4개 하위 영역으로 축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연구 대상이므로 보다 간략한 분류 체계인 유윤희(1994)의 분류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에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 부모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고혜진, 2003; 정유진, 1999; 주현정, 1998), 규칙에 보다 충실하고 친구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애, 1999). 그러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배기명, 1983), 학교수업에 적응을 잘 하고(노미숙, 2003; 배숙진, 1998), 교우관계도 더 좋다(박소혜, 1995)는 상반된 결과도 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없다(최지은 외, 2003)는 보고도 있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서도 선행 연구 결과는 모순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미숙(2003)의 조사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은 학교생활, 특히 교우 관계에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혜진(2003)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담임 교사와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 모두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서 차이는 없었다. 한편, 김정애(1999)는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혜진, 2003; 김정애, 1999).

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아동이 가정 및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태도이며, 이에 따라 자녀의 적응 정도는 달라진다.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가정의 아동이 거부적이고 타율적인 가정의 아동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김영아, 1997; 안영립, 1992; 정의순, 2001), 학습 활동에도 긍정적이고(이용학, 1989; 정은건, 2002)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혜진, 2003). 그리고 부모의 합리적인 태도도 교우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이승화, 2001; 정은건, 2002),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성공하고 좋은 성적을 얻기만을 기대하지 않을 때에 자녀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경향을 보였다(윤아기, 1996).

반면에,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과 역상관을 보였다(박소혜, 1995). 즉,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가 낮을수록 자녀는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애정과 관심은 오히려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지향적으로 지각한 자녀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이하영, 2002)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라는 보고(박소혜, 1995)도 있다.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독립적으로 살펴보다도 위와 비슷하다. 즉, 아버지의 태도가 자율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교사, 교우, 수업, 규칙, 행사 영역 등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을 잘하고(고혜진, 2003; 남궁정, 2001; 이승화, 2001), 아버지의 태도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학습 활동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성취동기도 낮으며 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혜진, 2003; 남궁정,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경우에도, 자율적이고 수용적으로 지각한 자녀는 교사와의 관계, 교우 관계, 학습 활동, 규칙 준수, 학교 수업과 학교 행사에 적극적이었다(고혜진, 2003; 남궁정, 2001). 그리고 어머니의 태도가 성취지향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교우 관계에 대한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이승화, 2001).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서 아동의 성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부모를 수용적으로 지각할 때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데 비해서(김영아, 1997),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어머니의 성취 기대가 지나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왕혜옥 외, 2004). 그리고 남학생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민주적이면서 엄격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데 비해, 여학생은 엄격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택, 2002). 또 남·여 학생 모두 어머니의 태도를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왕혜옥 외, 2004), 부모의 양육태도를 무관심형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택, 2002). 한편, 김정애(1999)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을 의미있게 예언하는 양육태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이 높고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학교 수업 및 규칙에 적응을 잘 하며, 학력이 낮고 양육태도를 방임적이라고 지각할 때 자녀는 학교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애, 1999). 반면에, 한경택(2002)은 고졸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보호형이라고 지각한 자녀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지적 발달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김윤희, 1996)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학력은 양육태도에 차이를 가져오며 이러한 차이가 자녀의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연령에 따른 결과에서는 30대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엄격한 것으로 지각한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부모가 40대인 경우에 무관심형으로 지각한 아동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택, 2002).

부모의 학력과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많지 않으나, 부모의 연령보다는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간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초등학교 5학년 각 5개 학급 아동 445명이었다. 설문지 응답자는 506명이었으나 부모 모두 없거나 한 쪽만 있는 응답자 및 응답이 불성실한 아동 61명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 445명의 성별 비율은 남자가 53.5%로 여자보다 조금 더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과반수(56.2%)가 대졸 이상이고 고졸이 38.9%, 중졸 이하가 4.9%이며, 어머니는 과반수(54.2%)가 고졸 이상이고 대졸이 41.1%, 중졸 이하가 4.7%로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어머니보다 높았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40대가 79.6%로 가장 많고 30대는 17.9%, 50대는 2.5%이며, 어머니는 30대(50.6%)와 40대(48.7%)로 양분되어 50대는 매우 적었다(0.7%).

2. 검사 도구

1) 부모 양육태도 검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기정(1984)이 청소년용으로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은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 압력의 세 영역이며, 각 영역마다 11개 문항씩 전체 33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4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점수범위는 11-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에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검사의 하위 영역별 내용과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수용-거부

- ① 수용 :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격려와 칭찬을 자주 사용한다.(문항 예: 부모님과 나는 마음이 잘 통한다)
- ② 거부 : 애정이 부족하고 무관심하며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자주 사용한다.(문항 예: 부모님은 내가 잘한 일이 있어도 칭찬해주는 일이 없다)

(2) 자율-통제

- ① 자율 :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며 부모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문항 예: 부모님은 어떤 일이든지 내게 강제로 시키는 법이 없다)
- ② 통제 : 지시와 간섭, 금지와 통제가 많으며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부모의 가치를 강요한다.(문항 예: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3) 성취 압력

- ① 비과잉 : 항상 성공하고 좋은 성적을 성취하기만 기대하지 않는다.
- ② 과잉 : 항상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좋은 성적만을 기대한다.
(문항 예: 부모님은 오직 공부밖에 모른다)

알파계수로 산출된 검사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아버지용에서 수용-거부

영역이 .750, 자율-통제 영역이 .715, 성취압력 영역이 .788이었고, 어머니용에서는 각각 .763, .721, .805로 나타났다. 3가지 하위 영역간 상호상관은 수용과 자율이 .44($p < .001$), 수용과 성취 압력이 $-.16(p < .01)$, 자율과 성취압력이 $-.56(p < .001)$ 이었다. 그러므로 부모의 수용과 자율적 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성취압력과는 상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생활 적응 검사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척도를 참고로 유윤희(1994)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마다 8개 문항으로 총 32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점수범위는 8-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검사의 하위 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교사 관계 : 아동이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꾸중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교사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문항 예: 나는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2) 교우 관계 : 학급 생활에 적극 참여하며 친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문항 예: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 (3) 학교 수업 :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과제를 해결하며 수업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문항 예: 나는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
- (4) 학교 규칙 :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가의 여부(문항 예: 나는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

각 하위 영역별 검사의 신뢰도(알파계수)는 교사관계가 .676, 교우관계가 .693, 학교수업 .739, 학교규칙 .602로 나타났다. 4가지 하위 영역간 상관관은 교사와 교우가 .34, 교사와 수업이 .51, 교사와 규칙이 .35, 교우와 수업이 .48, 교우와 규칙이 .31, 수업과 규칙이 .48로 모두 유의있는($p < .001$) 긍정적 관계를 보여, 하위 영역들이 학교생활을 반영하는 일면에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료 수집 및 처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4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주의점 등을 설명한 후,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소요된 시간은 25~30분 정도이었다.

배경 변인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 test)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필요시 Scheffe의 사후검증을 이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 양육태도의 각 하위 영역별 점수의 상위 30%를 상집단, 하위 30%를 하집단으로 구분하고 두 집단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t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집단 구분을 상하위 각각 30%로 정한 것은 사례수를 두 집단에 가급적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서였다.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유형은 각 하위 영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수용-거부적 태도의 경우 부모의 점수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수용형 일치, 모두 낮은 집단은 거부형 일치, 부모간 양육태도가 다른 유형이면 불일치 유형으로 정하였다. 자율-통제적 태도, 성취 압력 태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구분하고 일치 유형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관련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들 중 유의있는 변수를 찾아내기 위해 단계적 선택법(stepwise selection)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 및 연령별 양육태도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표 1>에서 살펴보면, 2개 하위 영역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아버지를 보다 자율적인 태도로 대한다고 지각하였으며($t(442) = -4.90, p = .0001$), 아버지의 성취 압력 태도에 대하여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과잉 기대를 한다고($t(443) = 4.31, p = .0001$)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차이

양육태도	성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수용-거부	남자	233	32.35	5.21	-1.80
	여자	205	33.17	4.36	
	합계	438	32.73	4.84	
자율-통제	남자	237	33.44	4.59	-4.90***
	여자	207	35.45	4.04	
	합계	444	34.38	4.45	
성취 압력	남자	236	25.03	5.34	4.31***
	여자	209	22.88	5.13	
	합계	445	24.02	5.34	

*** $p < .001$

어머니의 양육태도도 <표 2>와 같이 아버지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어머니가 좀 더 자율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였으나($t(434) = -4.19, p = .0001$), 성취 압력 태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어머니가 과잉 기대를 한다고($t(436) = 3.34, p = .0009$)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과 남학생이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를 지각하는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차이

양육태도	성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수용-거부	남자	229	34.48	4.85	-1.62
	여자	201	35.21	4.47	
	합계	430	34.82	4.69	
자율-통제	남자	232	33.04	4.52	-4.19***
	여자	204	34.84	4.44	
	합계	436	33.88	4.57	
성취 압력	남자	234	25.86	5.63	3.34***
	여자	204	24.10	5.38	
	합계	438	25.04	5.58	

*** $p < .001$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자녀가 지각한 자율-통제적 태도와 성취 압력 태도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수용-거부적 태도에 있어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F(2, 425) = 9.07, p = .0001$) 나타났다. Scheffe의 다중비교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자녀($M = 34.72, SD = 4.37$)는 중졸 이하인 자녀($M = 32.0, SD = 4.36$)보다 아버지를 더 수용적으로 지각하였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아버지가 보다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도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율-통제적 태도와 성취 압력 태도에는 차이가 없으나, 수용-거부적 태도에서는 유의있는 차이($F(2,$

425) = 9.45, $p = .0001$)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자녀($M = 34.94$, $SD = 4.53$)가 중졸 이하인 자녀($M = 31.54$, $SD = 4.90$)보다 어머니를 더 수용적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더 수용적으로 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에서는 수용-거부적 태도와 자율-통제적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취 압력 태도에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F(2, 435) = 5.93$, $p = .002$) Scheffe의 다중비교 결과, 아버지 연령이 40대인 자녀($M = 4.92$, $SD = 5.23$)가 30대인 자녀($M = 22.80$, $SD = 4.47$)보다 성취 압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대인 아버지가 30대보다 자녀에게 성취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는 3가지 유형에서 모두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 및 연령별 학교생활 적응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 영역에서 차이를 보면, 교사 관계에서 유의있는 차이($t(451) = -5.03$, $p = .0001$)가 나타나, 여학생($M = 27.45$, $SD = 4.17$)이 남학생($M = 25.33$, $SD = 4.76$)보다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교우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표 3>과 같이 교사관계와 학교규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우 관계($F(2, 451) = 4.63$, $p < .01$)와 학교 수업($F(2, 448) = 6.24$, $p = .002$)에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e의 다중비교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자녀는 고졸인 자녀보다 교우 관계가 더 원만하고 학교 수업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교우 관계가 좋고 학교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은 4개 하위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3>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차이

학교생활	학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s 다중비교
교사 관계	중졸이하	21	27.09	3.78	1.48	
	고졸	165	26.05	4.78		
	대졸이상	241	26.78	4.35		
	합계	427	26.52	4.50		
교우 관계	중졸이하	22	26.90	5.09	4.63**	대졸>고졸
	고졸	165	27.12	4.66		
	대졸이상	240	28.45	4.48		
	합계	427	27.85	4.62		
학교 수업	중졸이하	22	28.22	4.72	6.24**	대졸>고졸
	고졸	162	25.85	4.70		
	대졸이상	239	27.45	4.88		
	합계	423	26.88	4.86		
학교 규칙	중졸이하	21	26.95	3.23	1.45	
	고졸	164	25.75	3.93		
	대졸이상	242	26.30	3.95		
	합계	427	26.12	3.92		

** p < .01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자녀의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에 대한 적응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많고 적응에 관계없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도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태도의 각 하위 영역별 점수의 상위 30%를 상집단, 하위 30%를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상하 집단간 학교생활 적응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부모의 수용-거부적 태도에서 상집단은 수용적 태도, 하집단은 거부적 태도로 규정하였다.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자녀의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에 대한 적응은 <표 4>와 같이 모두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수용적인 태도는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차이

학교생활적응	아버지의 태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교사 관계	수용	147	28.78	4.37	8.96***
	거부	160	24.23	4.49	
교우 관계	수용	148	30.40	4.23	9.89***
	거부	159	25.56	4.33	
학교 수업	수용	145	29.42	4.90	9.39***
	거부	164	24.46	4.38	
학교 규칙	수용	146	26.98	4.29	3.37***
	거부	161	25.42	3.84	

*** $p < .001$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자녀의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에 대한 적응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수용적인 태도도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도 상집단은 자율적 태도, 하집단은 통제

적 태도로 규정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5>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차이

학교생활적응	어머니의 태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교사 관계	수용	151	28.26	5.00	6.48***
	거부	160	24.76	4.53	
교우 관계	수용	150	29.90	4.58	7.60***
	거부	161	25.95	4.59	
학교 수업	수용	150	28.99	4.67	7.83***
	거부	160	24.90	4.53	
학교 규칙	수용	149	27.00	4.40	3.51***
	거부	162	25.36	3.74	

*** $p < .001$

아버지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라 자녀의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교 수업에 대한 적응은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교 규칙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교사·교우 관계를 원만히 하고 학교 수업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라서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자녀의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교 수업에 대한 적응은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교 규칙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율적인 태도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교사·교우 관계를 원만히 하고 학교 수업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성취 압력 태도에 따른 자녀의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교 수업에 대한 적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 규칙에서만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t(328) = -2.00, p = .046$ 나타나, 아버지의 기대가 지나치지 않은 자녀의 학교규칙 준수 정도($M = 26.62, SD = 4.13$)가

기대가 지나친 경우($M = 25.73$, $SD = 3.92$)보다 높았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과잉 기대를 하지 않을수록 자녀는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아버지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차이

학교생활적응	아버지의 태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교사 관계	자율	144	27.21	4.81	3.03**
	통제	156	25.56	4.59	
교우 관계	자율	145	28.97	5.17	4.18***
	통제	156	26.66	4.42	
학교 수업	자율	139	27.82	5.03	3.77***
	통제	159	25.71	4.63	
학교 규칙	자율	146	26.19	4.69	0.37
	통제	155	26.02	3.68	

** $p < .01$, *** $p < .001$

<표 7> 어머니의 자율-통제적 태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차이

학교생활적응	어머니의 태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교사 관계	자율	157	27.50	4.76	3.44***
	통제	182	25.76	4.52	
교우 관계	자율	156	28.87	5.09	4.15***
	통제	181	26.68	4.60	
학교 수업	자율	152	27.96	4.99	4.43***
	통제	183	25.62	4.61	
학교 규칙	자율	158	26.33	4.69	1.15
	통제	182	25.80	3.56	

*** $p < .001$

어머니의 성취 압력 태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4가지 하위 영역 모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성취 압력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그다지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부모간 양육태도의 일치유형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유형은 하위 영역별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부모간 일치 유형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차이를 비교하였다.

부모간 수용-거부적 태도의 일치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은 4개 하위 영역에서 <표 8>과 같이 모두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e의 다중비교 결과, 자녀의 교사관계와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에서 부모가 모두 수용적인 경우가 부모 중 한 쪽이 수용적이거나 거부적인 경우보다, 그리고 부모 중 한 쪽이 수용적이거나 거부적인 경우가 부모가 모두 거부적인 경우보다 긍정적이며, 교우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가 모두 수용적인 태도로 대할 때 자녀가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규칙에 있어서는 부모 모두 또는 한 사람이라도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때 자녀는 보다 순응적인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 모두 또는 한 사람이라도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간 자율-통제적 태도의 일치유형에 따라서는 <표 9>와 같이 교사관계, 교우 관계, 학교 수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학교 규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사후 비교 결과, 교사 관계에서는 부모가 모두 자율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모두 통제적인 경우보다 자녀의 교사 관계가 더 좋았고, 교우 관계와 학교 수업에 있어서는 부모가 모두 자율을 허용하는 태도로 일치할 때 자녀의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학교 수업에 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가 자율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교사·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학교 수업에도 잘 적응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 부모의 수용-거부적 태도의 일치유형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차이

학교생활 적응	양육태도 일치유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s 다중비교
교사 관계	수용형 일치	176	28.25	4.51	32.09***	수용>불일치 불일치>거부
	거부형 일치	142	24.37	4.43		
	불일치 유형	95	25.98	3.79		
교우 관계	수용형 일치	176	29.66	4.54	29.80***	수용>거부 수용>불일치
	거부형 일치	143	26.01	4.12		
	불일치 유형	97	26.68	4.78		
학교 수업	수용형 일치	172	28.82	4.75	36.07***	수용>불일치 불일치>거부
	거부형 일치	144	24.54	4.02		
	불일치 유형	96	26.44	4.61		
학교 규칙	수용형 일치	174	26.67	4.22	7.41***	수용>거부 불일치>거부
	거부형 일치	145	25.08	3.35		
	불일치 유형	96	26.41	3.74		

*** p < .001

<표 9> 부모의 자율-통제적 태도의 일치유형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차이

학교생활 적응	양육태도 일치유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s 다중비교
교사 관계	자율형 일치	178	27.15	4.73	5.70**	자율>통제
	통제형 일치	164	25.50	4.36		
	불일치 유형	77	26.19	4.42		
교우 관계	자율형 일치	180	28.93	4.97	11.48***	자율>통제 자율>불일치
	통제형 일치	163	26.72	4.56		
	불일치 유형	76	26.84	3.71		
학교 수업	자율형 일치	175	27.93	5.08	9.79***	자율>통제 자율>불일치
	통제형 일치	164	25.72	4.23		
	불일치 유형	77	26.23	4.85		
학교 규칙	자율형 일치	180	26.38	4.44	1.57	
	통제형 일치	165	25.74	3.32		
	불일치 유형	76	25.63	3.59		

** p < .01, *** p < .001

부모간 성취 압력 태도의 일치유형에 따라서는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교 규칙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 수업에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F(2, 417) = 2.88, p < .05$). 사후 검증 결과, 부모의 성취기대 정도가 불일치할 때($M = 25.85, SD = 4.73$)보다 부모 모두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을 때($M = 27.28, SD = 4.76$)에 자녀의 학교 수업 참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성취 압력 태도의 일치여부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체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 수업에서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일치할 때보다 부모가 모두 성취 압력을 주지 않을 때에 자녀의 적응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요인

부모의 3가지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4개 하위영역에 관련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과 그에 따른 단계적 선택법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 변수	R	R ²	β	r	F
교사관계	아버지의 수용	.451	.203	.300	.465	95.62***
	어머니의 수용	.125	.219	.195	.416	7.86**
교우관계	아버지의 수용	.310	.157	.303	.416	68.50***
	어머니의 수용	.443	.196	.290	.451	89.68***
학교수업	아버지의 수용	.127	.213	.199	.410	7.53**
	어머니의 수용	.202	.041	.193	.210	15.66***

p < .01, *p < .001

학교생활 적응 중 교사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용적 태도가 유의있게 나타났다. 이 2개의 변수는 자녀의 교사 관계를 22% 설명해 주

며 그 중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가 20%로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 중 교우 관계에서는 독립변수의 전체 설명 변량이 16%($R^2 = .163$)이며, 그 중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의 설명량이 15.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 수업에 대한 적응에서는 전체 설명량 21.3% 중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의 설명량이 19.6%를 차지하고, 어머니의 경우는 1.7%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 규칙에 대한 적응에서도 전체 설명량 4.9% 중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의 설명량이 4.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 및 연령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 일치유형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강릉지역 초등학교 5학년 아동 4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선행 연구들과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아동은 성별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 모두가 자율을 더 허용한다고 지각한 반면에,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서 부모가 성취에 대한 과잉 기대를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고혜진, 2003; 김영아, 1997; 남

궁정, 2001; 최경자, 2002)와 일치하며, 자녀수가 많지 않은 요즘의 가정에서 여자에게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남아 존중 사상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통제적 태도와 성취 압력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부모의 학력별로 차이가 없었다. 선행 연구(김윤희, 1996; 김정애, 1999)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화목한 태도를 보이고, 자녀에 대해 수용적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이러한 지위의 상승으로 인해 자녀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에서는 성취 압력 태도에서만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유의있는 차이를 보여, 40대인 아버지가 30대보다 자녀에 대한 성취 압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 양육태도에 차이가 없다는 선행 연구 결과(고혜진, 2003; 김정애, 1999)와는 상이한 것이지만, 요즘 40대의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해고, 명퇴 등의 위기를 느끼면서 자녀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갖게 하고자 성취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인 것 같다.

둘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대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이 중 교사와의 관계에서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에 더 잘 적응한다는 선행 연구(고혜진, 2003; 정유진, 1999; 주현정, 199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나, 남학생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배기명(1983)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성격 특성상 여자가 남자에 비해 비교적 온순하고 다정다감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스스로없이 잘 하고 수용적 태도를 보여 교사

와의 관계가 더 원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어머니의 학력과는 무관하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학교 수업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미숙(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제력은 아버지의 학력과 관계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업에 더 많은 뒷받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학력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선행 연구 결과(고혜진, 2003; 김정애, 1999)와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은 대체로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수용적 태도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박소혜(1995)의 주장과는 상반되지만, 다수의 선행 연구(김영아, 1997; 안영림, 1992; 이승화, 2001)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로 양육하면 자녀는 가정에서만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부모간 양육태도의 일치유형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가 모두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반면에(정의순, 2001), 부모의 행동이 불일치할수록 아동은 사회적 부적응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선행 연구(최영, 1990)와 일치된다. 부모의 태도가 불일치하면 아동은 정서적 균형을 잃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만(정인석, 1977), 일치된 태도는 아동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하고 일관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사회적 적응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관여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상관이 있는 요인은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수용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간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 되는 현상 속에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공동의 책임이 부여되는 가운데(이연주 외, 2002)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장재홍 외, 2002)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의 수용적인 태도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보면, 부모는 남학생에게 성취 기대를 더 많이 하는 반면에 여학생에게는 보다 자율적인 태도를 허용하고,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촉진시키며, 특히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머니와 비슷하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음이 근래에 밝혀짐에 따라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최경순, 1992; Lamb, 1997; Rohner & Veneziano, 2001), 아버지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이 자녀의 적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입증되었다(조주은, 정옥분, 2004).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수용을 지각하는 기회가 적어 어머니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아동 17,000명을 4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조선일보, 2002), 어릴 때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 참여하면 나중에 자녀의 학업성적 향상과 정신질환 발생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용적, 자율적인 양육태도의 구체적인 의미와 어머니의 그와 같은 태도와의 차이에 관해서는 계속 탐색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강릉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양한 지역 및 학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은 개인적 특성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발달하므로 아동의 성격 특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자녀관과 결혼 만족도, 어머니의 직업 유무, 지역, 종교, 가족 분위기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추후 연구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혜진(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능력과의 관계.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병두(1996). 학업성취 관련변인. 서울: 양서원.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순명(1993). 자각된 양육 경험과 자아 정체감 및 통제 귀인간의 관계 분석.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진 . 도현심(2001). 부모간 양육행동의 관련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01-114.
- 김영아(199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래 . 구성숙(1991). 학습자 변인의 상호관계 연구. 교육연구 논총, 7, 71-110.
- 김윤희(1996). 양육태도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199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환(1981). 학교의 물리적 환경변인이 아동의 정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재(1994). 아동기의 A/B유형 행동양식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 차이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궁정(200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학교 생활적응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미숙(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동아일보(2004, 9, 14). 고교 학업 중단자 3년간 10만 명.
- 민영순(1995). 가정환경 및 학급사회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혜(1995). 국민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기명(1983).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에 따른 적응문제 및 적응기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직수(1970). 가족관계와 아동의 성격특성. 성균관대학교논문집, 15, 191-215.
- 송설희(1994). 가족 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은정(1999).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희정(1987). 부모양육태도 일치여부와 자녀의 내-외통제성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미경(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영림(1992).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 ·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트(한국행동과학연구소), 11(1), 1-15.
- 왕혜옥 · 김광웅(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1(2), 77-88.
- 유양숙(1995). 부모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인지양식과 정서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윤희(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 성취간의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아기(1996).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아 개념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화(200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특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주 · 정영숙(2002). 어린이집 학부모로서의 어머니 역할인식 및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인식과 역할수행. 생활과학연구논총, 5, 11-30.
- 이용학(1989).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하영(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반발심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유진(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실(2002). 부모의 양육태도 및 그 일치도가 아동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순(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재홍·김태성(2002).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 양육태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23-139.
- 전진선(1995). 부모간의 자녀 양육태도의 일치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아동교육, 4(1), 137-155.
-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건(200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의순(2001). 영재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석(1977). 현대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 조선일보(2002, 3, 1). 자녀 성적은 아버지하기 나름.
- 조주은 . 정옥분(2004).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1(3), 135-155.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수경(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자(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1990).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치여부, 귀인 성향,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한경택(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al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

Becker, W. C. (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Bro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Emery, R. E. (1988).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ury Park, CA: Sage.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Hurlock, E. B. (1972). *Child development* (5th ed). New York: McGraw-Hill.

Ilg, F. L. & Ames, L. B. (1955). *Child behavior*. London: Amish Hamilton.

Lamb, M. E. (1997).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 New York: Wiley.

McHale, J.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 family. *Family Process*, 36, 183-201.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idnnus, G. R. (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50-154.
- Mussen, P. H. (1968).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Prentice-Hall, Inc.
- Rohner, R. P., & Veneziano, R. A. (2001). The importance of father lov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82-405.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of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384.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9, 417-424.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ABSTRACT

Relations of Parental Child-Rearing Styles with School Adjustment for Early Adolescents

Choi, Hyo-Im* · Kim, Sung-II**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nd the fifth graders' school adjustment. Four hundred and forty five early adolescents were drawn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in Kangnung. Girls perceived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s more autonomous than boys did, while boys perceived it as more achievement-oriented than girls did. Girls also associated better with teachers than boys did. Parent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showed more affectionate than those with lower one. And fathers in the age of 40s showed more achievement-oriented than those of 30s. Students who had father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showed to adjust better to school learning and to associate with better with friends than those with lower educational level. In general, students whose parents were affectionate and autonomous tended to adjust better to school environment. Father's acceptance was selected as the most useful variable in estimating school adjustment for early adolescents.

Key Words: parental child-rearing styles, early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투고일: 10월 25일, 심사일: 12월 8일, 심사완료일: 12월 23일

* Kangnung Chung-Ang Elementary School

** Kangnung National University